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종민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제19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순천만습지서 갈대음악회·아침선상투어 등 다채

붉은 노을과 철새, 그리고 바람에 넘실대는 황금빛 갈대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순천만습지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순천만 갈대축제'가 펼쳐진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하늘, 바람, 그리고 갈대'라는 주제로 개막 갈대음악회, 명사초청 콘서트, 갈대 연인의 밤, 아침선상투어, 달빛야행투어, 트레일 러닝(가족과 함께 걷기), 갈대오브제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순천만의 청초한 새벽과 가을 내음 가득한 별빛을 만끽할 수 있도록 새벽투어와 야간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새벽투어로는 무진과 함께하는 선상투어와 데크길 산책, 동천하구에서 순천만까지 생명의 땅을 달리고 걷는 트레일 러닝, 야간투어로는 용산, 와온 등 일몰 명소를 연계한 순천만 노을길 여행이 준비돼 있다.

가을의 낭만과 인문학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젊은 층을 위해 마련한 행사들도 눈에 띈다. 4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별과 시, 음악을 사랑하는 커플 100쌍을 대상으로 광재구 시민 등 명사와 함께 떠나는 갈대



연인의 밤이 마련돼 있다.

국내 최초로 해양수산부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더욱 높아진 순천만의 위상을 반영해 순천형 생태개념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또 4일에는 순천만 생물다양성 증진 전문가 워크숍을 운영해 깃벌박원과 순천만 습지 생태계 보전방안

을 모색하고, 4일부터 5일까지 주민 주도 생태관광 활성화 워크숍 등이 열려 생태와 문화의 융복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갈대음악회, 명사 토크콘서트, 일본 'SAKURA Project' 콘서트, 어린이 모의 랍사르총회, 갈대화관 및 디오라마 만들기, 갈대 울타리, 갈대 염서 만들기 등 다채로운

공연 및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한쪽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떡거리 및 농산물 판매가 이뤄져 오감만족 축제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축제기간에 맑은물관리센터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으로 운영되며 순천만습지와 맑은물관리센터를 오가는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해 교통혼잡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국가정원운영과 최삼립 과장은 "순천만 갈대축제는 1997년 제1회 순천만 갈대제를 시작으로 올해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가을 대표 축제"라며 "기존의 관광중심축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전문가·주민주도형 생태축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친환경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순천만 탐방객을 분산하고 탐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 '정원갈대축제'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마을 리더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하는 계기 마련

광양시는 10월 30일 옥룡면 백운산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리더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어촌퍼실리티데이터협회 최현주 강사와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문병교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내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소개와 마을리더의 역량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조직과 소통기법 강의를 시작한 최현주 강사는 마을만들기 변화와 마을자원 조사, 마을회의를 통한 소통방법을 강조했다.

이어 문병교 강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현장과 활동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며, 선배 활동가로서 마을의 색깔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오후에는 읍면동을 대표하는 마을공동체 11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펼쳐져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공유함으로써 마을간의 공동체 회복을 통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인 어울림상에 광양을 송보(자이퍼트)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감동상에는 진상면 지림마을회와 광영 마을공동체가, 사랑상에는 봉강면 담저마을회와 중마동 고북사

지킴이단이 차지했다.

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한 마을공동체에게는 2018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 혁신도시 '스마트 미디어스테이션' 개관

LED외벽 활용 영상 콘텐츠 구현

나주 혁신도시의 새로운 문화랜드마크가 될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이 개관했다.

나주시는 10월 30일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일원에 조성된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 개관식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음악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은 외벽 투명전광(LED)유리를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최신기술을 장착한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이다.

나주시는 지난 6월 20일, LH,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 기반 지역개발활성화 지원 사업' 협약 체결, 전연염색 등 지역에 특화된 융·복합 콘텐츠개발 및 연계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하드웨어 구축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협약의 첫 결실인 스마트미디어 스테이션은 총 사업비 6억원(나주시 3억, LH 3억)이 투입됐으며, 가로12mX폭4mX높이6m의 2층 구조로 설치됐다.

순천시, 고혈압·당뇨 관리교실 운영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연향3지구)에서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고혈압·당뇨 관리교실'을 운영 하고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혈압·당뇨 관리교실은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교육실에서 매주 화·목요일 진행되며 12월까지 8주에 걸쳐 운

영된다. 고혈압·당뇨 관리교실에 참여하면 고혈압·당뇨 질환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올바른 혈압·혈당 측정 방법 알기, 식습, 치매 바로알기, 신체활동, 요리체험, 웃음치료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과 8주 후에 건강측정(혈압·혈당·고지혈증·체성분측정)을 시행, 관리교실에 참여하면서 건강생활실천을 통

한 건강개선효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고혈압·당뇨 관리교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평소의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이 습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내년도 고혈압·당뇨 관리교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고혈압·당뇨 질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교육 신청하면 된다.

순천=김충영 기자

화순군, 등산대회서 건강홍보관 운영



화순군은 화순군체육회장기 등산대회에서 건강홍보관을 운영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군은 10월 28일 동구리 호수공원 등에서 화순 국화향연 부대행사로 열린 등산대회에서 보건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홍보활동을 펼쳤다.

보건소는 '건강100세'라는 주제로 시행하고 있는 암·치매·심뇌혈관질환·결핵·감염병 예방 및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섭취와 뇌졸중,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과 각 보

건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대장암 검진을 위한 사전 체변통 배부 및 각종 보건사업 홍보 리플릿, 배너 전시 등을 통해 건강과 보건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100세를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다"며 "보건소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찾아가는 구슬영화관' 호응

옥곡면 의암마을서 희망영화 무료상영·문화 향유 기회 제공

광양시 옥곡면(면장 김성배)은 지난 27일 의암마을 회관에서 '찾아가는 구슬영화관' 영화상영이 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 열렸다고 밝혔다.

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의암마을 주민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를 관람했다.

이날 상영한 '수상한 그녀'는 스물셋 무사 꽃 처녀가 된 철순 할머니의 이야기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영화를 가까운 마을회관에서 관람해 더욱 뜻있는 자리가 됐다.

의암마을 박상주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영화를 보고 싶어도 여건상

영화관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마을회관에서 편하게 영화를 즐기고 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김성배 옥곡면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직접 찾아가 영화 상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영상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옥곡면은 지난 3월 잡초가 무성했던 의암회관 옆 공터를 유채꽃과 양귀비가 예쁘게 물들고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꽃단지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